

<첨부>

2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0]

## <‘코로나 현상’에 맞선 ‘시민’의 ‘연대’>

NCKK 언론위원회는 2월의 주목하는 시선으로 <‘코로나현상’에 맞선 ‘시민’의 ‘연대’>를 선정하였다. 지난 1월, 우리는 코로나를 주목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와 ‘공포’에 대처하는 인간의 자세>를 이달의 시선으로 선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다시 코로나를 주목하는 이유는 재난이 한 공동체의 역량의 척도이고, 재난을 대처하는 방식은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와 건강성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감당키 어려운 코로나19 재난 앞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두 얼굴의 민낯을 본다. 하나는 귀를 열어 세상 얘기를 듣고 사태를 감당해야 할 리더인 교회, 정치권, 언론이 보이는 무책임한 ‘코로나 현상’이다. 다른 하나는 코로나의 피해자인 ‘시민’들이 ‘연대’해 만들어가는 새로운 희망과 미래다. 우리는 ‘#내가대구다, #내가대구경북이다, #내가대한민국이다’로 상징되는 운동에서, ‘코로나현상’에 맞서 ‘시민’이 삶의 주체가 되고, ‘연대’하여 진행하고 있는 공동체 운동을 주목한다.

코로나19는 무서운 속도로 감염이 확산되면서 확진자 5,328명, 사망 32명을 기록하고 있다(3월 4일 현재). 한 치 앞을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확진자를 수용할 병상과 의료 인력 부족난을 겪고, 거리가 한산해질 정도로 어려워진 경제 속에서 삶의 현상이 점점 짝짝해져 가고 있다. 온 나라가 고통 받고 있는 지금, 문제 해결 주체들인 교회, 정치, 언론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신천지 집단과 일부 교회는 종교를 내세워 방역을 방해하고, 정치는 네 탓 공방하며 재난을 정쟁에 이용하며, 언론은 혐오와 공포를 조장한다. 지금까지 반복돼 온 이들의 고질적 관행은 코로나19를 맞아 ‘코로나 현상’의 행태로 그 모습을 다시 드러냈다.

‘코로나는 악마의 시험’, ‘기도하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 ‘마녀사냥 공격을 멈춰라’. 코로나 감염 확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신천지 집단의 주장이다. 한 때 코로나 19 확진자의 72%까지 차지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집단이 할 얘기가 아니다. 이들은 명단을 감추고, 신분을 속인다. 베일에 가려진 신도들이 어디를 돌아다니며 어떻게 감염시키는지, 감염 원인을 찾는 방역 당국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이단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감염자를 차단하고, 방역하기 위해서다. 자신이 감염돼 있는지도 모를 신도도 보호하고, 이들로부터 필요 없는 희생을 막자는 것이다. 바이러스 전염이 심각한데 대규모 거리집회와 대규모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는 무엇인가? 신도는

누구인가? 교회는 가난하고 힘없는 이의 친구인가? 종교의 역할은 무엇인가? 신은 과연 있는가? 이 땅의 교회에 다시 묻는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 청원은 146만을 넘겼다. 이에 대항한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 청원은 124만을 넘겼다(3월 4일 현재). 갈라진 진영을 대변하는 책임 공방 뒤에는 네 탓이라며 재난을 정쟁으로 활용하려는 정치권이 있다.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숨은 기득권들이 벌이는 전형적인 ‘딥 스테이트(Deep State)’ 현상이다.

“지금 당장 사람들 인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잘못된 정치화’는 자제하고, 나중에 정말 치열하게 평가해 보자.” -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피해자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발언을 반복하고, 코로나 예방의 상징인 마스크 보급조차 제대로 수습 못 하는 당국의 무능은 사태가 진정된 뒤 책임을 물으면 된다. 방역에 총력을 쏟아도 사태를 진정시키기 힘든 시점에 해당 장관을 파면하라 요구한다. 모든 것을 기-승-전-문재인 논리로 공격하면서도 코로나19 확산에 주요 원인을 제공한 신천지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한다. 다시 우리나라로 되돌아올 혐오가 조장될 수 있는 중국인 입국 금지를 지금도 되뇌고 있다. 정치권의 정쟁은 언론과 결탁해 혐오와 공포를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 된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한다.

“구멍 뚫린 ‘우한 폐렴’... 3차 감염 공포 커진다.”(서울경제, 1/28)

“‘우한 폐렴’ 환자 2명, 강남 일산 평택 확보했다.”(중앙, 1/28)

“르포/ 대립동 차이나타운 가보니... 가래침 뱉고, 마스크 미착용 위생불량 심각”  
(헤럴드경제, 1/29)

“서울 한복판 백화점까지 바이러스 비상”(조선, 2/6)

병명을 WHO가 권고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신 ‘우한 폐렴’을 고집하며 혐오를 드러낸다. ‘뚫렸다’, ‘무너졌다’, ‘포비아’, ‘총체적 난국’ 등 자극적인 단어로 제목을 달아 정쟁을 합리화하고 국민의 공포와 불안 심리를 극대화시킨다. 보다 못해 기자협회가 <감염병 보도준칙>의 기준을 강조하고 나섰다. 감염병 보도는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면서, 확인된 정확한 정보로 사건의 맥락을 이해시키고 문제의 원인과 대응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언론의 환경감시기능은 총선에 연계된 정치 프레임에 갇혀 유명무실해 졌다.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닌 언론망국론은 코로나19 사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한국의 언론, 간악하고 간악하다. 이들을 이대로 두면 한국은 될 일도 안 될 것 같다. 하다못해 언론사별 ‘간악성 지수’라도 만들어 순위를 매겨 발표하는 시민단체

라도 생기면 좋겠다.” - 주진형 전 한화증권 대표이사

“세월호 때부터 본격화된 대한민국 미디어의 타락은 이제 어디가 바닥인지 가늠도 어려운 지경까지 왔다. 대부분의 미디어는 사실에 관심 없고, 미디어 소비자들을 비이성과 혐오와 증오에 감염시키는 속주 노릇을 하고 있다.”

-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종교집단과 정치권, 언론이 혐오와 공포를 내세워 재난을 정쟁화하자 ‘시민’이 나섰다. #힘내라대구 #힘내라대구경북 #힘내라대한민국은 #내가대구다 #내가대구경북이다 #내가 대한민국이다로 승화했다. ‘시민’은 다시 자신의 삶과 공동체의 주인이 되고, ‘연대’로 재난을 정치프레임화 하는 ‘코로나 현상’에 맞서는 주체가 되었다. 대구 시민들은 도시락으로, 마스크로 취약계층 돕기에 나섰다. “힘내세요, 대구! 코로나19, 조속한 퇴치 응원합니다. 비록 적은 금액이나 마스크구매에 보탬이 됩니다. 인천시민 드림” 70대 노인은 24만 원을 맡겼다. 전국에서 대구·경북으로 지원과 응원하는 메시지가 답지했다. ‘시민’들은 자신의 이익을 넘어, 정쟁을 넘어, 지역을 넘어 ‘연대’해 새로운 희망과 역사를 만들고 있다. 우리가 다시 ‘시민’의 ‘연대’에 주목하는 이유다.

코로나19가 덮친 도시는 한산했다. 이동제한과 방역으로 관광, 음식, 숙박, 도소매업의 경영은 70%에서 90%까지 떨어졌다. 아예 장사를 접은 사람들도 있었다. 전국에서 착한 임대료 운동이 벌어졌다. 2월 12일 전주 한옥마을 건물주 14명은 상생선언문을 발표하고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3개월 이상, 10%의 임대료를 인하했다. 전주 전통시장과 옛 도심 건물주 100명이 동참했다. 전주를 시작으로 퍼진 착한 임대료 운동은 지난 주말부터 전국으로 확산 중이다. 인천 계양구 돼지고기집 운영자는 건물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같이 이겨냅시다. 적은 돈이지만 계좌번호 좀 알려 주세요.” 월 임대료의 30%인 50만 원을 돌려받았다. 서울 남대문 4,000점포와 동대문 4,300점포, 광주 광산 송정역 시장과 남구 봉선시장, 대구의 서문시장, 인천의 부평문화의 거리와 복합쇼핑몰, 울산의 시정시장과 덕하시장, 충북의 청주 충주 제천 6개 전통시장, 부산의 전포 카페거리, 경주의 황리단길... 건물주들은 2, 3개월에서 코로나가 가라앉을 때까지, 적게는 10%에서 80%까지 임대료를 인하했다. 전북 군산의 건물주는 3개월간 전액을 받지 않기로 했다. 착한 임대료 운동은 민간에서 공공부문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협력체 사이의 상생으로까지 진화하고 있다.

정상영업이 불가능해 식당에 쌓인 식자재를 시민들이 사주는 운동이 시작됐다. 2월 21일 페이스북 <대구맛집일보>는 식당의 식자재를 소비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쌀국수집, 스테이크집, 케이크점에 남겨진 식자재는 주변 시민의 호응으로 순식간에 매진됐다. 주문 완료 인증 댓글이 쏟아지고, 방문하지 못하는 사람은 응원 댓글을

달았다. (아직 살만한 세상, 코로나공포 이긴 대구의 ‘이상한 매진 행렬’ - 국민, 2/25) 식자재 소비 운동은 카페에서 닭갈비집, 육회집, 통닭집으로 퍼져나갔다. 거리에서 과일 행사하는 할아버지도 시민소개로 굴 80박스를 소화했다. ‘매장으로 전화가 폭주했다, 감동이였다.’ 감격한 식당 주인은 사태가 진정되고 다시 활기찬 대구가 되면 깜짝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다짐한다. 대구에서 벌어진 식자재 소비 운동은 부산과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금 대구는 유사 이래 엄청난 의료재난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은 공포에 휩싸였고 경제는 마비되고 도심은 점점 텅 빈 유명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략)...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들 지금 바로 선별진료소로, 대구 의료원으로, 격리병원으로 그리고 응급실로 와 주십시오.”

2월 25일 이성구 대구광역시의사회장이 눈물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코로나19의 확진자 5,328명 중 대구·경북이 4,780명(약 90%)을 차지한다(3월 4일 현재). 확진 받고도 아직 입원 못 한 이가 2,300명이나 될 정도로 병상과 의료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호소문 발표 다음 날인 26일, 전국에서 250명의 의료진이 자원했다. 지원자는 다음날인 27일에는 500명으로, 2월 마지막 날에는 853명으로 늘었다. 병원 문을 닫고, 걱정하는 가족을 달래고, 차출되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고 대구로 가는 사람들의 사연은 감동적이다.

“저희 엄마 병원도 기약 없이 휴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와중에 간호사 이모들 월급은 챙겨 드리고 월세도 같이 내신다고 했습니다.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엄마한테 가지 말라고, 서울에 있으라고 이를 내내 울었지만 엄마는 코로나 때문에 다른 병이 있는 분들이 죽을 수도 있다. 몇 달 쉬는 동안 나는 돈보다, 소중한 게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병원 문을 닫고 대구로 달려간 엄마를 걱정하며 쓴 고등학교 2년생의 글이다. 학생의 글은 당부도 잊지 않는다. “진료가 끝나면 병원에 있는 의료진에게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말해주세요. 그 한마디가 엄마를 일하게 하는 힘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 대구·경북은 지금, 지역 의료진과 자신을 버리고 달려간 작은 영웅들의 헌신으로 어려운 싸움을 견뎌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는 ‘코로나 현상’에 맞서 ‘시민’들이 ‘연대’해 쓰는 새로운 역사를 보며 다시 희망을 품는다. 역사가 스티브 터클은 말했다. ‘희망은 절대로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않는다. 항상 아래에서 위로 솟아오른다.’ 집단모임 예배를 중지한 성숙한 교회와 의료계, 시민이 하나가 되고, 대구·경북과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면서 우리 공동체는 더욱 건강해질 것이다.

우리 사회의 투명성도 깊어질 것이다. 거울에 비친 내 본 모습을 제대로 응시하려면 내 쪽의 불을 꺼야 한다. 코로나19의 치유는 멀고 힘든 과정이지만,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을 드러내 발표하고 검증하며, 부족한 부분을 하나씩 채워나가는 중이다. 이 싸움을 이기면, 더 투명해진 사회에서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더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창조는 고난 없이 불가능하다. 상처는 새로운 세상을 연다. 코로나는 재난이지만, '시민'은 '연대'로 극복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공동체'를 만들 것이다. NCKK 언론위원회가 2월의 주목하는 시선으로 <'코로나현상'에 맞선 '시민'의 '연대'>를 선정한 이유다.